

'전복솜털' 등 국내 미기록 해조류 3종 발견

조태오 조선대 교수
환경생물학회지에 보고
'전복솜털' '실슴말' '바늘점말'
한국 생물 종목록에 추가



조선대학교 조태오 생명공학과 교수가 한국 미기록 해조류 3종을 발견하고 환경생물학회지 최근호에 보고했다.



조태오 조선대 생명공학과 교수가 유전자 분석 등으로 발견한 전복솜털, 실슴말, 바늘점말(왼쪽부터) <조선대 제공>

4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태오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서식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해양생물 미기록 3종을 유전자분석과 형태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조 교수는 이들 종을 각각 '전복솜털'·'실슴말'·'바늘점말'로 새롭게 지칭하고, 우리나라 생물 종목록에 추가했다. 전복솜털은 전복 패각이나 다른 해조류에 붙어 2cm까지 자라며 사상형의 엽체

들이 가지를 내지 않고 뭉쳐서 자란다. 이 종은 미국과 칠레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우리나라 부안군 변산반도와 포항에서도 생육하는 것으로 최근 조사됐다. 실슴말은 엽체가 10cm까지 자라며 실모양의 타래를 이루며 뭉쳐서 바위나 다른 해조류에 부착되어 자란다. 작은 가지가 직각을 이루며 나누어지는 것이 특징

이다. 기존에 그리스와 일본에서 보고됐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추자도, 동해시, 제주, 부안 등 전 해안에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늘점말은 1cm까지 자라며 배양시 사상의 엽체들이 뭉쳐서 구형을 이룬다. 우리나라 울진에서 생육하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이들 미기록 갈조류들은 해양에서 먹이

생산과 순환, 그리고 해양생물군집을 풍성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전복솜털은 전복의 먹이로 알려져 있다. 한편 조태오 조선대학교 교수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해양갈조식물기타등등보존기관을 운영하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갈조식물자원의 확보와 소재개발과 활용에 힘을 쓰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국문학과 BK+사업단, 한국학 세계화 앞장

전남대가 한국학 해외 중점기관과 적극적인 학술교류에 나서는 등 한국학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BK21플러스 지역기반 문화기초창출 인재양성사업단(단장 신해진)은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동안 22건의 업무협약을 포함해 세계 5대륙 22개국 51개 해외 한국학 관련 대학·기관들과 학술교류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고 있다.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6차례의 국제학술대회와 24번의 해외석학초청강연회, 14차례의 해외연수를 포함한 국제학술포럼 공동개최, 34건의 공동연구 제안 등 활발한 학술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협업체제 속에 국제학술대회에서 3편의 공동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2건의 해외공동연구 성과를 KCI에 등재(후보)지에 게재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어문학 및 지역어 연구의 한-중 학술 교류와 성과'와 올해 '세계 속의 한국어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발견을 통해 무려 18편의 지역어 기반 한국학 연구의 국제적 성과를 도출했다. 신해진 단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어 기반 문화의 초국가적 소통을 통해 글로벌·로컬의 경계를 횡단하는 문화적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BK21+ 사업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국가 단위를 넘어 문화적 소통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환경에 맞춰 횡단형 문화기초창출의 토대 형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SW융합교육원, 나주금천중서 SW교육 페스티벌



호남 최초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인 조선대의 SW융합교육원(원장 정일용)은 최근 나주금천중학교에서 'SW기적과 함께하는 SW교육 미래진로콘서트'를 주제로 SW교육 및 로봇 체험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조선대 제공>

광주대 대학원, 2020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

11~22일 원서 접수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대학원이 2020학년도 전기 석·박사과정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석사학위 과정 160명과 박사학위과정 40명이다. 외국인 등 정원 외 인원은 별도 선발한다. 광주대 대학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인력 양성과 융·복합분야의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학과별 세미나와 학술지 게재 논문지원, 국제학술지 투고 논문 번역료 지원 등 교육활동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모집은 인

문사회·공학·예체능·자연과학계열 28개 학과 신입생 70명과 편입생 9명을 선발한다. 박사과정은 단독과 협동과정계열 13개 학과에서 신입생 35명이다.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신입생 30명과 편입생 3명, 박사과정 신입생 5명을 선발토록 했다. 더불어 보건상담정책대학원은 인문사회·자연과학·예체능계열 11개 학과에서 석사과정 신입생 60명·편입생 1명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11~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면접 및 실기전형은 30일에 실시되고, 12월 13일 오후 2시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교학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여상, 국가직 9급 공무원 6명 합격

9년 간 총 32명 합격 ... 광주·전남 특성하고 중 최다
1학년 대상 공무원반 운영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최규명)는 "올해 6명의 국가직 지역인재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전남여상에 따르면 지난 1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국가직 9급 지역인재 공무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3학년 재학생은 이수현(일반행정직), 이지훈(일반행정직), 이수양(회계직), 김현연(세무직), 오가원(세무직), 박현화(관세직) 등 6명이다. 전남여상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공무원반을 운영하며 필기시험에 대비한 방과후학교 수업과 면접을 대비한 전




공스터디, 스피치 훈련, 모의면접 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특별전형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지난 9년간 매년 3-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32명이 9급 공무원에 합격하는 등 광주지역 특성화고 가운데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게 전남여상 측의 설명이다. 최규명 교장은 "학생들에게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해 진로를 찾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여대, 가을 송강 문화제 '10월의 마지막 밤'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가 최근 대학본부 앞 잔디광장에서 가을 송강 문화제인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그간 광주여대 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해왔던 가을 방송축전에 총학생회가 새로이 기획한 할로윈 파티를 가미했다. 중간고사를 마무리하고 시험 준비



에 수고한 대학 구성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대학생활에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존과 할로윈 분장 스텐디오 및 포토존, 뮤직킬 및 아가펠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